

1999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성과분석

정택수 · 이상준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필자의 동의 없는 인용은 삼가함을 밝힙니다.

차 례

I. 서 론	1
II.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개괄	3
III.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9
1. 연구방법	9
2.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10
3. 노동이동	21
4. 임금비교	24
5. 실업자 직업훈련이 실업탈출에 미치는 효과 실증분석	26
IV. 결 론	29
참 고 문 헌	31

표 차 례

<표 II-1> 실업자재취직훈련 추이	3
<표 II-2>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4
<표 II-3> 실업자 재취직훈련생 특성 비교	5
<표 II-4> 평균훈련기간 및 재취업소요기간	7
<표 III-1> 훈련유형별 재취업률	11
<표 III-2> 98년도 훈련유형별 수료율 및 재취업률	12
<표 III-3> 99년도 훈련유형 기준 분류에 위한 98년도 재취업률	12
<표 III-4> 개인특성별 재취업률	14
<표 III-5> 월별 훈련종료자 취업률	15
<표 III-6> 경력별 재취업률	16
<표 III-7> 훈련이전 실업기간별 재취업률	17
<표 III-8> 훈련기간별 재취업률	17
<표 III-9> 전 직업별 재취업률	18
<표 III-10> 훈련직종별 취업률	19
<표 III-11> 지역별 재취업률	20
<표 III-12> 직업별 이동	22
<표 III-13> 산업별 노동이동	23
<표 III-14> 훈련이수자와 중도탈락자 임금비교	24
<표 III-15> 취업자와 중도탈락자간의 임금비교	25
<표 III-16> 훈련이수자 평균 월급여액 비교	26
<표 III-17> 모형에 사용한 변수설명	27
<표 III-18>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실업탈출에 미치는 효과 추정식	28

I. 서론

98년의 대량실업하에서 실업정책의 근간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 실업자재취직 훈련이다. 98년도 실업자재취직 훈련은 96년의 923명, 97년에 1,949명에서 163천명 84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훈련규모는 과거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용과 형식뿐만 아니라 실업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비용측면에서도 과거와의 비교가 의미가 없을 만큼 대량의 정책비용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투입과 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하여 향후 실업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책의 평가(evaluation)를 통하여 미래의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99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성과분석을 하고자 한다. 98년의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비교를 통하여 99년의 성과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II장에서는 99년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현황을 파악하여 뒤에서 이루어질 99년 성과분석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에서 매달 집계되는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시현황 분석」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고용보험동향」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엄밀한 훈련평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용보험 DB」중 98년 99년 「실업자 재취직 훈련 DB」를 이용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가한 훈련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99년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성과분석을 다양한 측면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재취업률을 근간으로 하여 99년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개인특성별, 직종별, 훈련직종별, 훈련유형별, 훈련기간별, 경력별 등으로 재취업률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취업후 사업장 초임과의 비교를 실시한다. 취업자의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동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고 끝으로 훈련이수자의 실업탈출에 관한 실증분석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의 하나인 COX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간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론은 해당 부분에서 따로 언급을 하겠으나 간략한 연구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분석을 위하여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보험 DB」중 「실업자 재취직 훈련 DB(이하: 실업자 DB)」를 이용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실업자 중 1999

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참가하여 2000년 3월 31일 내에 훈련을 종료한 143천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를 분석하기보다는 99년 한해동안 실시되었던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결과(output)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훈련의 효과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성, 외부적 요인 등을 통제한 후에야 가능하지만 본 자료의 특성과 방법론상으로는 훈련의 효과만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과는 훈련의 효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산출물인 것이며 다양한 형태로 산출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개괄

99년도 실업자 재취직 훈련 성과분석을 하기에 앞서 <표 II-1>을 통해 96년부터 99년까지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996년 실업자 재취직 훈련인원이 단지 923명이었던 것이 98년에는 163천명으로 늘어남으로서 우리 나라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원뿐만 아니라 수당과 비용자체에서도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훈련의 내용과 시설, 정책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 표 II-1> 실업자재취직훈련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훈련인원		923	1,949	163,111	226,800
지원금	소 계	846	2,262	191,194	306,172
	훈련수당	458	1,099	88,871	96,003
	훈련비용	388	1,163	102,323	210,169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연보』, 1999.

<표 II-2>는 고용보험사업장 및 대상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추진실적을 나타낸 표이다. 이중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 관련된 사항만을 보면 98년에는 163천명이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가하였고 99년에는 170천명이 참가하여 4.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훈련지원금을 보면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98년에 1천9백 억원 이던 지원금이 99년에는 3천억 원 가량으로 늘어나 60.1%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원금이 60%이상 증가한 이유는 98년에의 실업자재취직지원금이 직업훈련 촉진 기금과 고용보험능력개발비에서 달리 지원 되 회계 상 이원화로 나누어 졌으나 99년에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폐지되어 이를 고용보험능력개발비로 일원화함에 따라 전체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표 II-2>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지원사업장			지원피보험자			지원금		
	98년	99년	증감률	98년	99년	증감률	98년	99년	증감률
소계	25,912 (100.0)	58,288 (100.0)	222.4	588,006 (100.0)	977,952 (100.0)	79.8	258,043 (100.0)	424,851 (100.0)	64.6
직업능력개발훈련	17,471 (68.5)	43,512 (74.7)	145.3	408,603 (69.5)	781,408 (79.9)	110.7	40,781 (15.8)	82,869 (19.5)	103.2
유급휴가훈련	339 (1.3)	333 (0.6)	-1.8	3,940 (0.7)	8,446 (0.9)	114.4	9,117 (3.5)	5,723 (1.3)	-37.2
수강장려금	-	-	-	2 (0.0)	51 (0.0)	2450	1 (0.0)	40 (0.0)	3,900
근로자학자금 대부	7,832 (30.2)	14,443 (24.8)	84.4	12,350 (2.1)	17,362 (1.8)	40.6	16,949 (6.6)	30,042 (7.1)	77.2
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	-	-	163,111 (27.7)	170,685 (17.5)	4.6	191,194 (74.1)	306,176 (72.1)	6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0년 봄호). 「고용보험동향」.

이하에서는 99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분석을 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성별로 보면 99년에는 98년에 비해 여성참가자의 비중이 35.9%에서 47.5%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실업자가 99년이 98년보다 증가했다는 의미로써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들 여성의 재취업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실업자 재취직 훈련참가 비중의 차이가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0-49세와 30-39세 연령대는 98년에 비해 4~5%p 가량 낮아졌으나 20-29세 연령대는 오히려 9%p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층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재취업률 성과에 따른 훈련기관의 차등지원으로 인해 훈련기관에서 재취업이 용이한 젊은 층을 선호하는 일종의 creaming 효과로 해석 할 수 있다. 각 훈련기관에서는 재취업이 용이한 학력별로는 98년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중졸이하의 저학력자 훈련참여 규모 및 비율 또한 98년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직종별로 보았을 때는 사무관매직이 98년에 비해 약간의 훈련참가 비중이 늘어났으며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과 기능원 직종에서 낮은 훈련참가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98년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여한 훈련생과 99년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과의 차이점은 훈련이전 실업기간, 훈련이전 경력, 전사업장 규모에서 알 수 있다.

<표 II-3> 실업자 재취직훈련생 특성 비교

(단위: 명, %)

구분		99년도		98년도	
		실시인원	비중	실시인원	비중
성별	남자	75,104	52.5	70,615	64.0
	여자	67,820	47.5	39,769	36.0
	소계	142,924	100	110,384	100
연령별	20세 이하	1,827	1.3	547	0.5
	20-29세	80,566	56.4	52,295	47.4
	30-39세	37,162	26.0	34,245	31.0
	40-49세	15,229	10.7	15,399	14.0
	50-59세	7,289	5.1	7,201	6.5
	60세 이상	851	0.6	697	0.6
	소계	142,924	100	110,384	100
학력별	초졸	1,077	0.8	1,340	1.2
	중졸	4,907	3.4	5,502	5.0
	고졸	81,340	56.9	61,122	55.4
	전문대졸	22,700	15.9	15,975	14.5
	대졸	31,628	22.1	25,370	23.0
	대학원	1,240	0.9	1,054	1.0
	소계	142,892	100	110,363	100
직업별	입법공무원	5,182	3.6	5,549	5.0
	전문가	4,432	3.1	3,479	3.2
	기술공	10,887	7.6	8,650	7.8
	사무직원	57,635	40.4	41,525	37.6
	서비스	15,645	11.0	10,421	9.4
	농업	362	0.3	227	0.2
	기능원	26,436	18.5	23,246	21.1
	조립원	5,644	4.0	5,229	4.7
	단순노무	16,401	11.5	12,049	10.9
	소계	142,624	100	110,375	100
훈련이전 실업기간	1개월이하	13,529	9.5	37,549	34.0
	1-3개월	24,576	17.2	33,079	30.0
	3-6개월	21,654	15.2	13,505	12.2
	6-12개월	33,252	23.3	12,319	11.2
	1년이상	49,913	34.9	13,932	12.6
	소계	142,924	100	110,384	100
훈련이전 직장경력	1년미만	54,410	38.1	7,784	7.1
	1-3년	41,815	29.3	22,777	20.6
	3-5년	17,156	12.0	25,801	23.4
	5-10년	15,099	10.6	28,187	25.5
	10년이상	14,444	10.1	25,835	23.4
	소계	142,924	100	110,384	100
사업장 규모	10인 이하	21,552	15.1	4,065	3.7
	11-50인	30,719	21.5	23,552	21.3
	50-100인	17,351	12.1	17,199	15.6
	100-300인	24,732	17.3	22,959	20.8
	300-500인	9,300	6.5	8,380	7.6
	500인 이상	39,270	27.5	34,229	31.0
	소계	142,924	100	110,384	100

자료: 9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DB』,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훈련이전 실업기간을 보면 99년이 98년에 비해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98년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3,932명으로 전체 비중의 12.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99년에는 49,913명(34.9%)로 무려 3배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99년의 훈련이전실업기간이 1개월 이하인 훈련생은 13,529명으로 전체 훈련생 중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8년의 37,549명(34.0%)보다 세 배 가량 낮아진 규모이다. 이는 결국 99년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98년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장기 실업자의 높은 구성비 및 규모의 증가는 전반적인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재취업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데 III장에서 보게 될 훈련이전 실업기간별 재취업률에서도 실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부표 2>에서 개인특성별 훈련이전실업기간을 보면 장기실업자의 특성들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 표에서 비율상으로만 보면 장기실업자는 남성이면서 중졸이하의 저학력자이고, 연령으로는 50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장기실업자의 훈련은 중장년층의 남성 가장들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훈련이전 경력을 통해 훈련생의 특성을 보면 직장경력이 낮은 사람들의 훈련수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규모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9세 이하의 연령대 훈련생의 규모 및 비율이 98년에 비해 늘어난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시장내 이동이 빈번한 청년층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훈련이전 사업장 규모별에 따른 훈련생의 특성을 보면 99년 5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출신의 훈련생 규모가 98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에 10인 이하 사업체 출신의 훈련생들의 규모와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98년의 실업은 구제금융이후 대규모 실업난 속에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출신의 화이트 칼라층 또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99년에는 98년에 비해 경제가 호전되면서 여성, 경력이 적은 청년층, 중소 및 영세 사업장 출신의 실업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99년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들은 여성이면서, 20-30대의 청년층과 고졸이면서, 사무직이고, 장기실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출신의 근로자들이 재취직훈련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8년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운 그룹 즉 근로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장기실업자, 영세기업 출신의 실업자가 증가하였으며 직업훈련 지원 또한 이들에 대해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99년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재취업 측면에서 볼 때 98년에 비해 다소 성과는 낮아질 수 있는 소지는 있으나 훈련자체의 내용 및 성격으로 볼 때는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훈련의 내실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표 II-4> 평균훈련기간 및 재취업소요기간

(단위: 일)

구 분		평균훈련기간	재취업소요기간
전 체		132.5	121.4
학 력	초졸	145.3	110.2
	중졸	144.6	110.0
	고졸	138.3	102.8
	전문대졸	131.5	98.9
	대졸	118.0	102.5
	대학원	104.0	98.2
연 령	20세 이하	159.5	86.2
	20-29세	138.5	96.3
	30-39세	127.0	109.3
	40-49세	121.2	116.5
	50-59세	120.0	116.6
	60세 이상	132.0	25.4
훈 련 직 종	농림·어업·광업분야	137.7	114.8
	섬유분야	134.2	106.2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137.6	100.3
	금속분야	124.0	75.8
	기계·장비분야	137.6	96.6
	건설분야	132.9	111.5
	전기분야	139.0	91.2
	전자분야	113.9	107.9
	정보·통신분야	122.5	94.8
	운송장비제조	179.5	65.9
	산업응용분야	159.8	92.5
	공예분야	153.9	89.7
	서비스분야	150.6	111.1
	사무관리분야	111.5	106.0
	금융·보험분야	69.7	123.6
	의료분야	153.4	112.5
	환경분야	67.1	130.9

자료: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한편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99년 훈련수료자 평균훈련기간과 재취업소요기간은 아래의 <표 II-4>에 잘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99년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평균훈련기간은 132.5일 98년의 125.4일 보다 약 일주일 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재취업소요기간은 121.4일로 98년의 111.6일보다 10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로 볼 때 저학력자들의 훈련기간이 제일 긴 것을

알 수 있으며 재취업 소요기간 또한 110일 가량으로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재취업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훈련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으나 재취업소요기간에서는 중장년층 그룹이라 할 수 있는 30대-50대 연령층에서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60대 층의 재취업소요기간이 25.4일로 가장 짧게 나타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취업자수가 작은데서 나타나는 편의로 보여진다. 훈련직종별로 볼 때 운송장비, 산업응용, 의료분야의 훈련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금융보험, 환경분야의 훈련기간이 가장 짧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금속분야, 운송장비, 산업응용, 전기분야 등이 가장 짧은 재취업소요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III.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1. 연구방법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보험 DB」중 「실업자 재취직 훈련 DB(이하: 실업자 DB)」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실업자 중 1999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참가하여 2000년 3월 31일 내에 훈련을 종료한 143천명¹⁾을 대상으로 훈련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로서 훈련수료생과 중도탈락자의 구분 및 재취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99년 1월부터 2000년 6월 31일까지의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종료 기간과 훈련수당 지급결정일을 비교하여 수료생과 중도탈락자를 분류하였다. 훈련수당은 후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훈련수당 지급결정일이 훈련종료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중도탈락자이고 훈련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수료자로 정의한 것이다. 이때 자료상으로 수료자는 훈련을 완전하게 끝낸 훈련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통 훈련기간의 90%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도 훈련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훈련수료생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재취업은 훈련이수 후 2000년 6월31일 이내에 고용보험적용사업장으로 취업을 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재취업을 2000년 6월 31일로 마감한 것은 98년도 실업자 재취직 훈련 성과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때 훈련을 받은 사람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실업기간은 6월 31일을 이후 우측잘림현상(right censoring)이 나타나게 된다. 훈련수료자의 훈련이전 실업기간은 전직장 고용보험상실일에서 훈련을 시작한 시점을 뺀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취업되기까지의 총 실업기간은 전직장 고용보험상실일에서 채용된 날을 뺀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훈련이후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은 채용일에서 훈련종료일을 뺀 기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중도탈락자중 재취업에

1) 여기서 143천명의 숫자는 훈련입학자로서 자료의 cleaning 과정을 통하여 나온 수치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 수보다는 다소 작은 수치이며 정보의 누락 등으로 특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실업자 DB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1999년 1월부터 훈련에 참가한 개인을 월별자료로 구성한 다음 이중 개인의 맨 마지막 정보를 기준으로 연구에 이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훈련생의 훈련기간이 3개월이라 가정하면 이 사람의 정보는 세 번 나타나게 되고 이중 맨 마지막 정보에서 훈련종료기간과 훈련수당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중도탈락자와 훈련수료자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실업기간은 정확히 훈련을 그만둔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채용일 - 최종 수당지급일+30일) 로 정의한다. 여기서 30일을 더하여 준 것은 훈련수당이 보통 1개월 후에 지급되므로 수당지급일 보다 한 달을 더 해야 실질적으로 훈련을 그만둔 날짜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연령은 자료에 연령 난이 따로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맨 앞 의 두 자리를 이용하여 역으로 추산하였으며 성별도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를 이용하였다. 본 자료에는 훈련을 2회 이상 반복한 사람은 제외한다. 임금비교는 실업급여 신청자 중 훈련에 참가한 사람 16,907명을 대상으로 하여 훈련을 받기 전 또는 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자격을 재취득한 사업장의 초임과 비교하고자 한다.

끝으로 취업률 정의는 취업률1 = (수료후 취업자 / 수료자)×100, 취업률 2는 (수료후 취업자 +중도탈락후 취업자 / 실시인원³)×100, 취업률3 = (훈련이후 90일 이내 취업자 / 훈련수료자)×100, 취업률4 는((수료후 취업자+ 중도탈락후 취업자) / (수료자+ 중도탈락후 취업자))×100으로 정의한다. 실업자 DB를 이용하여 훈련생의 재취업률을 구하거나 비교하기 위해서는 재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실업자 DB를 어느 시점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 재취업률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취업소요기간의 비교를 통하지 않는 취업률 성과 비교는 분석의 편차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수료자 대비 취업률인 취업률 1과 수료자 중 90일 이내 취업에 성공한 훈련생의 취업률을 중심으로 99년 실업자 재취직훈련 성과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99년 실업자 직업훈련 성과

가. 훈련유형별 취업률

99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재취업성과를 보자. 입학자 143천명 중 수료자가 91천명으로 나타나 수료율은 63.9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표 III-2> 98년도 수료율인 77.6%보다 13%p 낮은 수치이다. 수료율 대비 재취업률은 29.7%로 98년의 35.4%보다 5.7%p 낮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훈련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훈련기관의 취업률1은 30.7%이며 민간훈련기관 전체 취업률1은 29.3%로 나타났다. 이중 지정기관은 45.6%, 지정외기관은 28.0%, 일하는 여성의 집은 19.2%, 훈련법인기관은 30.5%로 각각 나타났다4).

2) 본 연구의 편의를 위해 훈련생 중 설사 훈련수당 최종지급일 전에 중도탈락을 하였다하더라도 수당을 받은 날까지는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가정한다.

3) 여기서 실시인원이라 함은 훈련 참가자 중 한번이라도 훈련수당을 지급 받은 훈련생을 일컫는다.

수료율과 함께 중도탈락을 보면 민간부문의 수료율이 64.4%로 공공부문의 59.3%보다 높았으며 중도탈락자 중 취업으로 인한 비율도 민간부문이 31.7%로 공공부문의 30.8%로 보다 앞서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하는 여성의 집은 수료율이 7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에 취업률이나 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 비율이 타 훈련기관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우리 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간지정기관은 수료율과 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비율, 그리고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률과 수료율이라는 지표로만 볼 때 타 훈련기관에 비해 성과가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III-1> 훈련유형별⁵⁾ 재취업률

(단위: 명, %)

훈련유형	입학자	수료자 ¹⁾	취업자	탈락후 취업자 ²⁾	총취업자	90일이내 취업자	취업률 1	취업률 2	취업률 3	취업률 4	
공공	14,605	8,657 (59.3)	2,657	1,832 (30.8)	4,489	1,544	30.7	30.7	17.8	42.8	
민 간	지정	5,586	4,004 (71.7)	1,826	757 (47.9)	2,583	1,164	45.6	46.2	29.1	54.3
	지정외	90,249	58,679 (65.0)	16,444	9,565 (30.3)	26,009	8,655	28.0	28.8	14.7	38.1
	일하는여성	1,476	1,075 (72.8)	206	82 (20.4)	288	99	19.2	19.5	9.2	24.9
	훈련법인	25,526	15,318 (60.0)	4,678	3,482 (34.1)	8,160	2,509	30.5	32.0	16.4	43.4
	소계	122,837	79,076 (64.4)	23,154	13,886 (31.7)	37,040	12,427	29.3	30.2	15.7	39.8
분류불분명	5,482	3,709 (67.7)	1,364	611 (34.5)	1,975	735	36.8	36.0	19.8	45.7	
합계	142,924	91,442 (64.0)	27,175	16,329 (31.7)	43,504	14,706	29.7	30.4	16.1	40.4	

자료: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주: 1)의 ()는 수료율이며 2)의 ()는 취업률로써 탈락후 취업자/ 중도탈락자 ×100으로 산정한 것임

-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99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된 훈련의 민간기관, 공공기관 훈련 평가를 보면 민간기관의 수료율은 62.5%이며 취업률 35.1%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실사를 통하여 나타난 수료율은 88.4%이며 취업률은 34.5%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기관별로 보면 기능대학의 취업률이 29.3%, 직업전문학교가 43.0%, 직업훈련원이 24.4%를 보이고 있다. 김미숙, 이동임, 이상준 외(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민간부문』, 서준호 외(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공공부문』 참조.
- 5) 훈련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 훈련시설', '근로복지공단 훈련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기관 중 지정훈련기관은 '사업주(단체)직업능력개발시설', '기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지정외 기관에는 '사업주(단체)미지정기관', 사설학원, '대학전문대학(미지정훈련시설)', 기타 미지정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I-2> 98년도 훈련유형별 수료율 및 재취업률⁶⁾

(단위: 명, %)

훈련유형	훈련기관	입학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직업훈련	공공직업	7,894	6,071	76.9	2,207	36.4
	인정직업	23,962	17,017	71.0	6,298	36.9
	사업내	1,458	1,090	74.8	532	48.8
교육훈련	지정교육	19,049	16,269	85.4	5,392	33.1
	공공	4,868	4,162	85.5	1,218	29.4
	대학,전문	22,574	18,635	82.6	6,330	34.0
	인정	68	54	79.4	18	33.3
학원훈련		29,605	21,636	73.1	8,094	37.4
계		109,478	84,934	77.6	30,089	35.4

missing 사례: 622명

자료 : 나영선·이상준(1999),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표 III-3>을 통해 98년과 비교해보자. <표 III-3>은 <표 III-2>을 통해 재구성한 것으로서 실제 99년의 훈련유형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략적인 비교만을 실시하고자 한다. 98년도 공공기관의 수료율과 취업률은 80.2%와 33.5%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기관의 수료율과 취업률은 77.2%와 35.7%로 나타났다. 이를 99년과 비교했을 때 99년 민간기관의 취업률은 98년에 비해 6.4%p 낮아졌으며 공공은 2.8%p 낮아진 결과이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지정기관은 10.5%p 높아졌으며 미지정기관은 8.2%p 낮아진 결과이다. 이를 통해 볼 때 99년의 훈련은 민간부문의 지정기관의 훈련 재취업성고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 표 III-3> 99년도 훈련유형 기준 분류에 위한 98년도 재취업률

(단위: 명, %)

구분	입학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공공	12,762	10,233	80.2	3,425	33.5	
민간	지정	43,079	33,340	77.4	11,708	35.1
	미지정	53,637	41,361	77.1	14,956	36.2
	총계	96,716	74,701	77.2	26,664	35.7
합계	109,478	84,934	77.6	30,089	35.4	

자료: < 표 6>에서 재분류

공공= 직업훈련공공직업기관 + 교육훈련공공, 민간지정= 직업훈련인정+교육훈련지정+교육훈련인정, 민간미지정= 직업훈련사업내+ 교육훈련 대학전문+학원으로 분류하였음

6) 본 표의 재취업률은 훈련이수 후 90일 이내 취업에 성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9년의 취업률 3에 해당된다.

나. 개인특성별 취업률

99년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재취업률을 개인특성별로 살펴보자. 성별로 볼 때 여자는 98년에 비해 재취업률이 남자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훈련에 참여한 입학생 수는 98년에 비해 3만 명 가량 늘어났으나 취업률은 오히려 남자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어 98년과 비교할 때 재취업률 성과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도 99년은 98년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재취업률이 98년과 다른데서 확인할 수 있다. 저학력자의 훈련참여 규모가 다른 학력보다 작은데서 기인할 수 있으나 동등한 훈련참여를 보인 98년과 비교했을 때 99년에는 중졸 이하의 취업률이 고졸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99년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98년에는 40대와 50대의 취업률이 동일했으나 99년에는 50대 층이 40대 층보다 취업률이 낮았으며 60대 연령층은 훈련인원이 작아 98년과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의 재취업률은 98년보다 월등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 특성별에 따른 수수료와 중도탈락률을 살펴보자. 여자가 남자보다 수수료가 2.0%p 가량 높은 반면에 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률은 1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훈련생들의 수수료가 높았으며 동시에 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살펴 보았을 때 저학력자의 수수료가 낮고 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 및 재취업률이 고학력자에 비해 낮다는 것은 저학력자에 적합한 훈련의 내용을 재설정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취업에 애로를 겪는 저학력자들에게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중도탈락을 방지하면서 이들 훈련생의 취업능력제고를 향상시키는 훈련내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연령별로 볼 때 30세 이하의 청년층대에서 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정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젊고 유능한 훈련생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유리한 우리 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특성별에 따른 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성과는 여자와 저학력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성과가 98년에 비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특성이 노동시장내 진입경쟁에 있어서 열악한 그룹이라는 점에서 취업률성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98년과 달리 근로취약계층의 취업률이 낮아진 데에는 99년 이후 실업문제가 안정되면서 노동시장내 진입경쟁에 우위가 있는 그룹만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의미로도 분석할 수 있다. 즉 경제가 호전되면서 99년 상반기까지는 실업자를 무차별하게 노동시장에서 흡수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어느 정도 실업이 안정되면서

서부터는 노동시장내 실업자의 선별(screening)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표 III-4> 개인특성별 재취업률

(단위: 명, %)

구분	입학자	수료자 ¹⁾	취업자	탈락후 취업자 ²⁾	총취업자	90일이내 취업자	취업률 1	취업률 2	취업률 3	98년 취업률 3	
성별	남자	75,104	47,361 (63.1)	17,019	10,144 (36.6)	27,163	9,135	35.9	36.2	19.3	35.2
	여자	67,820	44,081 (65.0)	10,156	6,185 (26.1)	16,341	5,571	23.0	24.1	12.6	35.8
학력	초졸	1,077	725 (67.3)	111	68 (19.3)	179	52	15.3	16.6	7.2	33.6
	중졸	4,907	3,127 (63.7)	473	382 (21.5)	855	233	15.1	17.4	7.5	32.6
	고졸	81,340	51,265 (63.0)	13,489	8,934 (29.7)	22,423	7,174	26.3	27.6	14.0	36.0
	전문대졸	22,700	14,276 (62.9)	5,280	3,168 (37.6)	8,448	2,949	37.0	37.2	20.7	36.3
	대졸	31,628	21,184 (67.0)	7,557	3,648 (34.9)	11,205	4,150	35.7	35.4	19.6	34.4
	대학원	1,240	840 (67.7)	265	129 (32.3)	394	148	31.5	31.8	17.6	36.2
	소계	142,892	91,417 (64.0)	27,175	16,329 (31.4)	43,504	14,706	29.7	30.4	16.1	40.4
	연령	60세이상	851	666 (78.3)	5	2 (1.1)	7	5	0.8	0.8	0.8
50-59세		7,289	5,466 (75.0)	1,004	431 (23.6)	1,435	460	18.4	19.7	8.4	32.8
40-49세		15,229	10,684 (70.2)	2,458	1,209 (26.6)	3,667	1,184	23.0	24.1	11.1	32.8
30-39세		37,162	24,388 (64.8)	6,940	3,759 (28.4)	10,699	3,547	28.5	28.8	14.5	34.1
20-29세		80,566	49,314 (61.2)	16,512	10,647 (34.1)	27,159	9,357	33.5	33.7	19.0	37.8
20세이하		1,827	924 (50.6)	256	281 (31.1)	537	153	27.7	29.4	16.6	35.4
소계		143,374	91,442 (63.8)	27,175	16,329 (31.4)	43,504	14,706	29.7	30.4	16.1	40.4

자료: 9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DB』,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주: 1)의 ()는 수료율이며 2)의 ()는 취업률로써 탈락후 취업자/ 중도탈락자 ×100으로 산정한 것임

다. 훈련종료 월별 재취업률

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월별 취업률을 보기로 하자. 본 분석의 취업률은 98년 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 수료자 중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훈련을 종료한 훈련동기생들을 대상으로 구하였다. 평균 재취업기간은 98년이 111.6일, 99년이 121.4일로 나타났으며 취업률은 98년이 68.8%, 99년이 26.8%로 나타났다. 훈련종료 달별로 보면 당해 연도 11월 시점부터 99년의 훈련생들의 재취업소요기간이 98년보다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99년 하반기부터 노동시장내 근로취약계층의 노동시장내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 표 III-5> 월별 훈련종료자 취업률

(단위: %, 일)

구 분	90일 이내	90-180일	181-365일	1년 이상	재취업소요기간		취업률	
					99년	98년	99년	98년
당해 연도 2월	6.02	15.04	18.80	6.02	215.3	364.6	45.86	96.0
3월	9.12	9.00	13.44	4.44	184.1	319.2	36.00	100.0
4월	11.75	11.12	13.42	5.66	181.3	291.3	41.95	95.0
5월	11.12	9.82	13.21	2.56	162.3	248.8	36.70	96.2
6월	10.46	9.23	14.90	1.59	165.3	224.6	36.18	95.5
7월	11.49	8.92	13.42	0.28	147.4	197.5	34.11	95.0
8월	9.45	8.57	11.95	-	142.6	168.9	29.97	92.4
9월	10.14	8.95	10.19	-	137.2	147.7	29.27	89.7
10월	11.37	10.35	8.02	-	124.9	127.4	29.73	85.1
11월	10.59	10.74	-	-	112.5	107.7	21.33	79.1
12월	12.04	9.32	-	-	99.5	92.2	21.36	70.9
익년도 1월	12.39	9.28	-	-	87.1	73.3	21.67	59.9
2월	12.71	6.44	-	-	72.5	55.1	19.15	47.6
3월	11.94	3.75	-	-	63.1	42.1	15.68	33.7
합계	11.24	8.54	6.65	0.31	121.4	111.6	26.75	68.8

자료: 9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DB』,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라. 기간별 취업률

본 절에서는 훈련기간, 경력⁷⁾, 훈련이전 실업기간별에 따른 재취업률을 분석함으로써 99년의 훈련 성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전직장 경력기간에 따른

7)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전직장 경력으로써 전직장 고용보험자격 상실일에서 전직장에 채용된 날을 빼준 개념이다.

재취업률 성과를 보자. <표 III-6>을 통해 98년과 99년의 전직장 경력별 재취업률의 유형은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훈련생들의 재취업률 성과가 낮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앞에서 살펴본 연령대별 재취업률에서 30대 이하의 연령층의 재취업률이 높은 점과 동일한 맥락속에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 표 III-6> 경력별 재취업률

구 분	입학자	수료자	취업자	탈락후취업자	총취업자	90일 이내 취업자	취업률1	취업률3	98년 취업률3
1년미만	54,410	32,626	11,305	7,616	18,921	6,452	34.7	19.8	36.7
1-3년	41,815	26,622	8,589	5,003	13,592	4,660	32.3	17.5	36.3
3-5년	17,156	11,161	3,190	1,834	5,024	1,654	28.6	14.8	35.9
5-10년	15,099	10,232	2,343	1,168	3,511	1,175	22.9	11.5	32.8
10년 이상	14,444	10,801	1,748	708	2,456	765	16.2	7.1	32.1
합계	142,924	91,442	27,175	16,329	43,504	14,706	29.7	16.1	35.4

자료: 9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DB』,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훈련에 참가하기 이전의 실업기간별에 따른 재취업률 성과의 특성은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률이 98년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98년을 보면 훈련이전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의 차이가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심지어 3개월 이하의 단기실업자보다도 재취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9년에는 훈련이전실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재취업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9년 훈련이전실업기간 중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규모는 96,648명으로 전체 입학자중 6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재취업자는 27,244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수료율과 중도탈락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료율에서는 실업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 및 중도탈락자 대비 취업률에서는 훈련이전 실업기간이 긴 훈련생일수록 재취업률이 작아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99년 훈련이 98년과 다른 특성은 장기실업자들의 훈련참여가 높았다는 점인데 이들의 재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기실업자의 재취업률이 낮은 것은 실업의 이력과 근로능력의 감소 또는 노동시장내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이전 실업기간이 긴 훈련생의 재취업률 감소는 재취업률 측면에서 본 99년의 성과가 98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하겠다. 따라서 장기실업자의 훈련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들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근로 능력 향상훈련 같은 이들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표 III-7> 훈련이전 실업기간별 재취업률

구분	입학자	수료자 ¹⁾	취업자	탈락후 취업자 ²⁾	총취업자	90일이내 취업자	취업률1	취업률3	98년 취업률3
30일이하	13,529	8,250 (61.0)	3,174	2,086 (39.5)	5,260	1,950	38.5	23.6	35.3
31-60일	13,857	8,861 (64.0)	3,070	1,792 (35.9)	4,862	1,724	34.6	19.5	33.7
61-90일	10,719	7,011 (65.4)	2,233	1,267 (34.2)	3,500	1,293	31.8	18.4	34.0
91-120일	8,171	5,321 (65.1)	1,679	959 (33.6)	2,638	904	31.6	17.0	33.4
121-180일	13,483	8,781 (65.1)	2,740	1,540 (32.8)	4,280	1,459	31.2	16.6	35.2
181-270일	17,741	11,416 (64.4)	3,327	1,954 (30.9)	5,281	1,668	29.1	14.6	37.0
271-365일	15,511	10,038 (64.7)	2,904	1,651 (30.2)	4,555	1,483	28.9	14.8	37.2
366일이상	49,913	31,764 (63.6)	8,048	5,080 (28.0)	13,128	4,225	25.3	13.3	35.7
합계	142,924	91,442 (64.0)	27,175	16,329 (31.7)	43,504	14,706	29.7	16.1	35.4

자료: 9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DB』,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주: 1)의 ()는 수료율이며 2)의 ()는 취업률로써 탈락후 취업자/ 중도탈락자 ×100으로 산정한 것임

훈련기간에 따른 재취업률 성과를 보면 99년에는 98년에 비해 6개월 이하의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의 성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98년과 99년 모두 9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의 재취업률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훈련기간 장기화의 효과는 훈련기간이 길수록 산업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훈련내용을 풍부하게 배움으로써 재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III-8> 훈련기간별 재취업률

훈련기간	입학자	수료자	취업자	90일이내 취업자	취업률1	취업률3	98년 취업률3
60일 이하	8,767	7,705	2,731	1,327	35.4	17.2	-
61-90일	22,813	17,066	5,580	2,895	32.7	17.0	35.2
91-120일	25,800	17,570	5,688	3,039	32.4	17.3	34.8
121-180일	35,391	21,116	6,220	3,610	29.5	17.1	39.6
181-270일	47,724	27,096	6,688	3,623	24.7	13.4	37.9
271-365일	2,429	889	268	212	30.1	23.8	45.9
합계	142,924	91,442	27,175	14,706	29.7	16.1	35.4

자료: 9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DB』,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마. 직종별 취업률

본 절에서는 전 직장 직업별 및 훈련에 참가한 훈련직종별로 99년 실업자재취훈련의 성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II장에서 알 수 있듯이 훈련 전직업별 훈련참가자의 특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98년에는 단순노무직, 기능원, 기술공준전문가 집단에서의 재취업률이 높았던 반면에 99년에는 이들 직업에서의 재취업률이 대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98년과의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90일 이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직종별 비율을 98년과 비교하더라도 준전문가 직업과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99년에 들어와 현격히 낮아졌으며 다만 99년에는 사무 판매직근로자의 비율이 98년보다 증가하였다⁸⁾. 99년의 재취업은 사무 판매직 중심으로 한 화이트 칼라층을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으로 볼 때 블루칼라층의 재취업 성과가 낮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 표 III-9> 전 직업별 재취업률

(단위: 명, %)

구 분	입학자	수료자	취업자	탈락후 취업자	총취업자	90일이내 취업자	취업률 1	취업률 3	98년 취업률3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182	3,666	906	424	1,330	415	24.7	11.3	20.1
전문가	4,432	2,822	939	515	1,454	513	33.3	18.2	40.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887	6,801	2,415	1,522	3,937	1,341	35.5	19.7	53.2
사무직원	57,635	37,951	10,799	5,821	16,620	5,849	28.5	15.4	28.7
서비스 및 판매	15,645	9,773	2,650	1,675	4,325	1,435	27.1	14.7	32.3
농·어업숙련	362	217	84	53	137	48	38.7	22.1	30.7
기능원	26,436	16,375	5,171	3,419	8,590	2,790	31.6	17.0	36.3
조직원·조립원	5,644	3,475	1,059	728	1,787	580	30.5	16.7	27.6
단순노무직	16,401	10,185	3,086	2,138	5,224	1,685	30.3	16.5	57.4
합계	142,624	91,265	27,109	16,295	43,404	14,656	29.7	16.1	35.4

자료: 98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DB』,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우리가 훈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시 훈련분야와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상 이와 관련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직종의 훈련참여자 분포와 재취업률에 국한하여 훈련직종의 성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훈련직종 분포를 보면 서비스분야(24.0%), 정보통신분야(23.5%), 사무관리(16.1%), 기계장비(10.7%) 분야 순으로 훈련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훈련직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8) 98년에 대한 정보는 나영선·이상준(1999) 참조.

이들 네 개의 직종이 전체 훈련직종의 74.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 실업자재
취직훈련 내용과 방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직종이라 할 수 있겠다.

< 표 III-10> 훈련직종별 취업률

(단위: 명, %)

훈련직종	입학자	수료자 ¹⁾	취업자	탈락후 취업자 ²⁾	총 취업자	90일내 취업자	취업률 1	취업률 2	취업률 3
농림·어업·광업분야	138	109 (79.0)	21	5 (17.2)	26	9	19.3	18.8	8.3
섬유분야	1,949	1,363 (69.9)	198	111 (18.9)	309	102	14.5	15.9	7.5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762	407 (53.4)	222	171 (48.2)	393	119	54.5	51.6	29.2
금속분야	94	52 (55.3)	25	21 (50.0)	46	17	48.1	48.9	32.7
기계·장비분야	15,348	9,432 (61.5)	4,017	2,399 (40.6)	6,416	2,240	42.6	41.8	23.7
건설분야	3,137	1,984 (63.2)	704	482 (41.8)	1,186	341	35.5	37.8	17.2
전기분야	4,290	2,722 (63.4)	1,078	684 (43.6)	1,762	637	39.6	41.1	23.4
전자분야	1,600	1,021 (63.8)	381	219 (37.8)	600	196	37.3	37.5	19.2
정보·통신분야	33,646	21,856 (65.0)	7,715	3,864 (32.8)	11,579	4,515	35.3	34.4	20.7
운송장비제조	171	134 (78.4)	101	28 (75.7)	129	77	75.4	75.4	57.5
산업응용분야	7,584	4,275 (56.4)	1,273	1,098 (33.2)	2,371	720	29.8	31.3	16.8
공예분야	690	469 (68.0)	113	52 (23.5)	165	64	24.1	23.9	13.6
서비스분야	34,250	22,238 (64.9)	3,755	2,720 (22.6)	6,475	1,874	16.9	18.9	8.4
사무관리분야	23,045	14,963 (64.9)	4,240	2,447 (30.3)	6,687	2,200	28.3	29.0	14.7
금융·보험분야	3,422	2,809 (82.1)	778	186 (30.3)	964	340	27.7	28.2	12.1
의료분야	12,202	7,125 (58.4)	2,291	1,790 (35.3)	4,081	1,131	32.2	33.4	15.9
환경분야	596	483 (81.0)	263	52 (46.0)	315	124	54.5	52.9	25.7
합계	142,924	91,442 (64.0)	27,175	16,329 (31.7)	43,504	14,706	29.7	30.4	16.1

자료: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주: 1)의 ()는 수료율이며 2)의 ()는 취업률로써 탈락후 취업자/ 중도탈락자 ×100으로 산정한 것임

반면에 재취업률에서는 운송장비제조(75.4%), 환경분야(52.9%)화학 및 요업
(51.6%), 금속분야(48.1%), 전기(39.6%), 전자(37.5%), 정보통신 분야(35.3%)에서 재취
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훈련직종별 수료율과 취업으로 인한 중

도탈락을 보면 금융·보험, 환경, 농어업·광업, 운송장비의 수료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으로 인한 중도탈락을 보면 운송장비, 금속분야, 환경분야, 전기, 건설 전자, 정보통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지역별 재취업률

지역별 훈련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인력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훈련성과에 따른 기관별 차등지원이 지역적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절대적인 취업률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훈련시장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기관은 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가능한 사람만을 선발하게 되는 cream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서울 인천 지역의 재취업률 성과가 타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대구, 부산, 전라지역의 재취업률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III-11 > 지역별 재취업률

구분	입학자	수료자	취업자	탈락후 취업자	총취업자	90일이내 취업자	취업률 1	취업률 2	취업률 3
충청	10,895	6,759	1,942	1,346	3,288	1,028	28.7	30.2	15.2
서울	40,317	26,469	8,836	4,689	13,525	4,861	33.4	33.5	18.4
강원	2,007	1,172	326	283	609	167	27.8	30.3	14.2
부산	18,128	11,477	3,167	1,984	5,151	1,663	27.6	28.4	14.5
경남	13,167	7,789	2,333	1,921	4,254	1,335	30.0	32.3	17.1
대구	11,755	7,667	1,920	1,111	3,031	1,046	25.0	25.8	13.6
경북	6,375	3,491	871	873	1,744	426	24.9	27.4	12.2
인천	6,837	3,996	1,352	1,016	2,368	734	33.8	34.6	18.4
경기	22,090	14,797	4,405	2,125	6,530	2,338	29.8	29.6	15.8
전라 (제주포함)	11,353	7,825	2,023	981	3,004	1,108	25.9	26.5	14.2
합계	142,924	91,442	27,175	16,329	43,504	14,706	29.7	30.4	16.1

자료: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서울은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훈련생들을 위한 다양한 훈련직종으로 실업자 재취직 훈련이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등 취업이 잘 되는 훈련직종에 훈련생이 많이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⁹⁾. 또한 타지역에 비해 노

9) 김미숙, 이동임, 이상준 외(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민간부문』, pp. 90-91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력 수요가 많음에 따라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에 부산, 경북, 전라 등 지역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의 성과는 작게 나타나고 있어 그 지역의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취업훈련 성과에 따른 기관별 차등지원은 지역적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훈련직종, 훈련기관의 질적 문제 등까지 참작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노동이동

이하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직업별 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로 노동시장내 이동은 동일직업 또는 동산업내로 움직이는 형태를 가진다. 전직장내의 경력이 재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특수한 숙련의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받은 훈련생의 경우 노동이동의 경향이 어떠한지 보도록 하자. 먼저 <표 III-12>에서는 직업별 이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직업으로의 이동 비율이 높은 직종은 사무직으로써 유일하게 전체평균보다 높다. 반면에 다른 직종은 타직종으로의 이직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타직종으로의 이직 비율은 63.9%로써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비율보다 높다. 1999년 고용보험대상자들의 직업별 노동이동을 보더라도 이러한 본 표에서 제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처럼 실업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전직업과 다른 형태의 직업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훈련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에서는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의 특성이 장기실업자와 경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은 기존의 기술과 능력을 통해 재취업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적은 집단으로써 오히려 훈련에서 받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창업이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재취업이 용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준전문가 집단내에서 입직이 이직보다 큰 사실에서 위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른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함에 따라 전문가나 준전문가 집단으로 이동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비단 직업별 이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산

한편 서울지역의 자격증 취득률 같은 성과는 훈련프로그램이 국가공인 자격이 없는 직종이 많이 개설됨에 따라 작게 나타나고 있다.

10) 「고용보험통계연보」상의 1999년 한해동안 직종별 산업간 이동을 보면 직종의 경우 고위임직원은 29.8%, 전문가, 준전문가는 29.2%, 31.2% 사무직 서비스직은 59.2%, 38.1%, 기능원 및 조직원직은 4.04%, 33.0%가 동일직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광업, 숙박 음식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50%이상이 동일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1999), 「고용보험통계연보」, PP26-28 참조.

업별 이동에서도 동일시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 III-12> 직업별 이동

전직종 현직종	고위임직원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농업직	기능원	조직원	단순노 무직	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5 (0.72)	31 (0.11)	39 (0.14)	325 (1.30)	36 (0.13)	1 (0.00)	41 (0.15)	6 (0.00)	18 (0.07)	729 (2.7)
전문가	66 (0.24)	174 (0.64)	270 (0.10)	817 (3.01)	124 (0.46)	2 (0.01)	182 (0.67)	17 (0.06)	93 (0.34)	1,745 (6.4)
기술공 및 준전문가	89 (0.32)	236 (0.87)	536 (1.98)	1,080 (3.98)	283 (1.04)	9 (0.03)	684 (2.52)	112 (0.41)	211 (1.19)	3,351 (12.4)
사무직원	325 (1.20)	301 (1.11)	739 (2.73)	5,814 (21.45)	950 (3.50)	15 (0.06)	1,072 (3.95)	169 (0.62)	602 (2.22)	9,987 (36.8)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55 (0.20)	49 (0.18)	130 (0.48)	862 (3.18)	538 (1.96)	9 (0.03)	392 (1.45)	84 (0.31)	264 (0.97)	2,383 (8.8)
농어업숙련 근로자	1 (0.00)	0 (0.00)	8 (0.03)	12 (0.04)	8 (0.03)	10 (0.04)	20 (0.07)	4 (0.02)	15 (0.06)	78 (0.3)
기능원	93 (0.34)	85 (0.31)	397 (1.46)	897 (3.31)	360 (1.33)	20 (0.07)	1,486 (5.48)	318 (1.17)	714 (2.63)	4,370 (16.1)
장치기계조작 원조립원	10 (0.04)	8 (0.03)	79 (0.29)	152 (0.56)	67 (0.25)	7 (0.03)	248 (0.92)	133 (0.49)	148 (0.55)	852 (3.1)
단순노무직	72 (0.27)	55 (0.20)	217 (0.80)	813 (3.00)	284 (1.05)	11 (0.04)	1,046 (3.86)	216 (0.80)	910 (3.36)	3,624 (13.4)
합계	906 (100)	939 (100)	2,415 (100)	10,799 (100)	2,650 (100)	84 (100)	5,171 (100)	1,059 (100)	3,086 (100)	27,109 (100)
타직업으로 이직	711 (78.5)	765 (81.5)	1,879 (77.8)	4,985 (46.2)	2,112 (79.7)	74 (88.1)	3,685 (71.3)	926 (87.4)	2,176 (70.5)	17,313 (63.9)
동일직업으로 이직	195 (21.5)	174 (18.5)	536 (22.2)	5,814 (53.8)	538 (20.3)	10 (11.9)	1,486 (28.7)	133 (12.6)	910 (29.5)	9,796 (36.1)
직업간 입직	534	1,571	2,815	4,173	1,845	68	2,884	719	2,714	17,323
입직- 이직	-177	806	936	-812	-267	-6	-801	-207	538	10

자료: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 표 III-13> 산업별 노동이동

(단위: 명,%)

전산업 현산업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 업	도소매 숙박	운수 창고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업	합계
농림어업	10 (0.04)	0 (0.00)	24 (0.09)	1 (0.00)	7 (0.03)	11 (0.04)	6 (0.02)	4 (0.01)	10 (0.04)	3 (0.01)	76 (0.28)
광업	0 (0.00)	1 (0.00)	18 (0.07)	1 (0.00)	5 (0.02)	3 (0.01)	1 (0.00)	1 (0.00)	2 (0.01)	0 (0.00)	32 (0.12)
제조업	18 (0.07)	9 (0.03)	5,628 (20.76)	15 (0.06)	487 (1.80)	873 (3.22)	290 (1.07)	278 (1.03)	833 (3.07)	239 (0.88)	8,670 (31.98)
전기가스	0 (0.00)	0 (0.00)	26 (0.10)	6 (0.02)	19 (0.07)	12 (0.04)	1 (0.00)	5 (0.02)	8 (0.03)	3 (0.01)	80 (0.30)
건설업	5 (0.02)	1 (0.00)	591 (2.18)	8 (0.03)	722 (2.66)	179 (0.66)	113 (0.42)	64 (0.24)	302 (1.11)	61 (0.23)	2,046 (7.55)
도소매숙박	12 (0.04)	6 (0.02)	1,556 (5.74)	8 (0.03)	243 (0.90)	894 (3.30)	213 (0.79)	217 (0.80)	471 (1.74)	159 (0.59)	3,779 (13.94)
운수창고	8 (0.03)	3 (0.01)	478 (1.76)	0 (0.00)	123 (0.45)	191 (0.70)	353 (1.30)	76 (0.28)	201 (0.74)	93 (0.34)	1,526 (5.63)
금융보험	1 (0.00)	0 (0.00)	158 (0.58)	2 (0.01)	21 (0.08)	71 (0.26)	17 (0.06)	515 (1.90)	72 (0.27)	36 (0.13)	893 (3.29)
부동산임대	17 (0.06)	5 (0.02)	2,729 (10.07)	33 (0.12)	604 (2.23)	990 (3.65)	333 (1.23)	499 (1.84)	2,065 (7.62)	387 (1.43)	7,662 (28.26)
기타 서비스업	3 (0.01)	7 (0.03)	848 (3.13)	2 (0.01)	135 (0.50)	295 (1.09)	99 (0.37)	144 (0.53)	296 (1.09)	517 (1.91)	2,346 (8.65)
합계	74 (0.27)	32 (0.12)	12,056 (44.47)	76 (0.28)	2,366 (8.73)	3,519 (12.98)	1,426 (5.26)	1,803 (6.65)	4,260 (15.71)	1,498 (5.53)	27,110 (100.0)
동일산업내 이직	10 (13.2)	1 (3.1)	5,628 (64.9)	6 (7.5)	722 (35.3)	894 (23.7)	353 (23.1)	515 (57.7)	2,065 (27.0)	517 (22.0)	10,711 (39.5)
타산업으로 이직	64 (86.5)	31 (96.9)	6,428 (53.3)	70 (92.1)	1,644 (69.5)	2,625 (74.6)	1,073 (75.2)	1,288 (71.4)	2,195 (51.5)	981 (65.5)	16,399 (60.5)
산업간 입직	66	31	3,042	74	1,324	2,885	1,173	378	5,597	1,829	16,399
입직-이직	2	0	-3,386	4	-320	260	100	-910	3,402	848	

자료: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4. 임금비교

본 항에서는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임금이 중도탈락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비교는 훈련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면만을 보고자 한다.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과 중도 탈락한 훈련생 중 23.1%가량이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재취업사업장의 초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료생 훈련생의 전체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1,515천원인 반면에 중도탈락자의 평균임금은 1,434천 원으로 중도탈락자가 다소 낮으며 임금이 상승한 훈련생 그룹도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취업 후 평균임금을 보면 수료후 취업자는 1.7배 가량 늘어났으나 중도탈락자는 1.6배 가량 늘어나 수료 후 취업한 훈련생들이 중도탈락자에 비해 약 10%p 가량 높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인 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연령별로는 대체로 수료후 취업자들이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그 반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과 전문대졸 학력에서 중도탈락자의 취업후 평균임금이 높았으며 사업자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한 중도탈락자들의 임금이 수료후 취업자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문가, 사무판매서비스직, 농어업 숙련공, 직종에서 중도탈락후 취업자들의 임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III-16>에서는 훈련을 이수한 훈련생과 일반적인 고용보험자격 상실자의 재취업시 평균임금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 표에선 전반적으로 훈련을 이수한 훈련생들의 임금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III-14 > 훈련이수자와 중도탈락자 임금비교

(단위: 명, 원)

구 분		수료후 취업자	탈락후 취업자		
			건수	건수	건수
실직전 평균임금	훈련생 전체	1,515,782	11,222	1,434,064	5,685
	임금상승한자	1,035,461	2,593 (23.1%)	1,010,670	1,315 (23.1%)
취업후 평균임금	훈련생 전체	1,135,733	11,222	1,092,396	5,685
	임금상승한자	1,751,561	2,593	1,609,113	1,315

자료: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 표 III-15> 취업자와 중도탈락자간의 임금비교

(단위: 원)

구 분		취업자	중도탈락후 취업자
연령	50-59세	2,808,503	1,915,000
	40-49세	2,263,806	1,645,842
	30-39세	2,060,720	2,048,369
	20-29세	1,437,427	1,373,476
	20세이하	517,000	603,333
학력	초졸	990,375	950,000
	중졸	1,050,868	1,708,074
	고졸	1,585,295	1,489,269
	전문대졸	1,297,995	1,374,381
	대졸	2,035,047	1,851,859
	대학원	4,530,089	2,232,190
취업후사업장규모	10인 이하	1,318,714	1,462,646
	11-30인	1,373,340	1,307,416
	51-100인	1,353,364	1,290,059
	101-300인	1,482,196	1,170,997
	301-500 이상	1,124,394	2,725,402
취업후직종	고위임직원	2,215,393	2,160,933
	전문가	1,497,959	1,572,785
	기술공 및 준전문가	3,434,655	2,709,680
	사무직원	1,442,404	1,461,169
	서비스판매	1,364,729	1,681,061
	농어업숙련	2,047,600	2,745,600
	기능원 및 기능근로자	1,462,912	1,093,840
	기계장치 조작원	1,074,814	926,346
	단순노무직	1,232,073	1,039,134

자료: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 표 III-16> 훈련이수자 평균 월급여액 비교

(단위: 천원)

		훈련이수후 고용보험보험 자격 취득시 평균월급여액	고용보험자격 취득시 평균월급여액 ¹⁾
성별	남자	1,251	1,035
	여자	915	700
학력	초졸	755	799
	중졸	828	829
	고졸	981	853
	전문대졸	972	872
	대졸	1,413	1,171
	대학원졸	2,427	1,729
	연령	30-39세	1,247
	40-49세	1,347	1,059
	50-59세	1,276	960
직종	고위임직원	1,860	1,776
	전문가	1,300	1,251
	기술공 및 준전문가	1,630	1,010
	사무직원	1,092	950
	서비스판매	885	771
	농어업숙련	1,248	1,147
	기능원 및 기능근로자	980	899
	기계장치 조작원	816	736
	단순노무직	806	775

자료: 1)은 한국노동연구원(1999년 가을호). 「고용보험동향」, 제 4권, 2호. 99년 『실업자 직업훈련DB』

5. 실업자 직업훈련이 실업탈출에 미치는 효과 실증분석

지금까지의 99년도 실직자 재취직훈련의 성과분석은 개인의 특성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왔다. 본 절에서는 개인의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99년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훈련생들의 실업탈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2000년 6월30일 시점에서 우측절단(right censoring)됨으로써 불완전한 미취업기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비례적 해자드모형(proportional hazard)의 COX 회귀식을 이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실업기간으로써 수료후 취업자는 앞에서 언급한 방식인 채용일에서 훈련종료일을 빼준 일수를 사용하였고 중도탈락자는 본 자료가 정확한 중도탈락일을 알 수 없으므로 채용일에서 마지막 훈련수당지급일+30일을 빼준 일수를 이용하였다. 한편 수료한 사람과 중도탈락자 중 미취업자는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훈련종료일 및 마지막 훈련수당지급일+30일을 빼주었다. 한편 독립변수는 <표 III-17>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표 III-17> 모형에 사용한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 정의 및 설명
실업기간(중속변수)	dura	단위: 일
성별	gnd	남자=1, 여자=0
학력 기준변수는 중졸이하	edu	국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연령	age	단위: 출생 년도
전직장 근속기간	carr	전 직장 채용일부터 고용보험 상실일 까지 기간 단위: 일
훈련기간	tdura	단위: 일
훈련이전 실업기간 기준 변수는 180일 이하	tsil1	실업기간이 180일 이하
	tsil2	181-365일이면 1
	tsil3	1년 이상 이면 1
수료여부	comple	수료=1 중도탈락은 0
전직 사업장규모 기준 사업장은 500인 이상	woscale1	사업장 규모가 100인 이하면 1
	woscale2	100-500 인이면 1
	woscale3	500인 이상이면 1
훈련종류 기준은 공공기관	type1	훈련기관이 공공이면 1
	type2	훈련기관이 민간이면 1
전직 직업 기준은 표준직업분류 7-9	occup1	표준직업대분류 1-3 이면 1
	occup2	표준직업대분류 4-5 이면 1
	occup3	표준직업대분류 6 이면 1

<표 III-18>은 99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실업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COX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훈련을 수료한 사람과 중도탈락한 사람과의 비교에서 보면 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재취업가능성이 중도탈락한 사람들에 비해 21.2%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성보다 63.5%의 재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력별로 보면 고졸은 중졸에 비해 37.6%, 전문대졸은 84.3% 대졸이상의 학력자는 79.3%의 재취업가능성이 중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이 경력은 적은 경력의 소유자일수록 재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훈련유형별로 보면 민간이 공공기관에 비해 재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훈련기간별로는 3개월 이하의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에 비해 재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훈련이전실업기간별로 볼 때는 장기

11) 본 비교는 수료자와 중도탈락자만의 비교임에 따라 훈련 참가자와 비참가자간의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수료자와 중도탈락자간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실업자의 재취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는 500인 이하의 사업장 출신의 훈련생이 500인 이상 사업장 출신의 훈련생들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8>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실업탈출에 미치는 효과 추정식

변수	계수	e ^β
성별(gender)	0.491 ***	1.635
고졸	0.319 ***	1.376
전문대졸	0.611 ***	1.843
대학이상	0.584 ***	1.793
연령(age)	0.026 ***	1.026
경력(carrer)	-0.00006 ***	1.000
훈련유형 더미	-0.041 **	0.960
훈련기간 91-180일	-0.007	0.993
훈련기간이 180일 이상	-0.042 ***	0.959
훈련이전 실업기간 180-365일	-0.141 ***	0.868
훈련이전 실업기간 365일 이상	-0.270 ***	0.763
100인 이하 사업장	0.071 ***	1.074
100- 500인 이하 사업장	0.064 ***	1.066
표준직업 대분류 1-3	-0.046 ***	0.955
표준직업 대분류 4-5	-0.134 ***	0.874
표준직업 대분류 6	0.029	1.029
수료여부(수료1, 아니면 0)	0.192 ***	1.212
-2log L		639847.5
(χ ²)		7402.7***
N= 142,589명,		
관찰값(취업자수): 43,593명, 미관찰값(미취업자 수): 98,996명(69.4%)		

IV. 결 론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정책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훈련의 평가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인 훈련의 평가를 통해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형성될 때 훈련의 효율화 및 내실화가 일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보험 DB」중 「실업자 재취직 훈련 DB」를 이용하여 99년에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가한 훈련생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98년에 이루어졌던 실업자재취직훈련 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99년의 성과 내지 특성,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뚜렷한 차이점은 훈련참여자의 특성이 98년과 다르다는 것이다. 즉 98년에는 대량실업하에서 무차별하게 훈련생이 참여하였으나 99년에는 장기실업자, 여성, 중소기업출신의 근로자, 경력이 적은 훈련생 및 저연령층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 의미는 99년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98년보다 근로취약계층의 참여가 많았다는 것으로 98년과는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훈련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실업자 훈련의 본질적인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나 여성, 고연령층대 등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것이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재취업을 측면에서 본 99년의 성과가 98년보다 낮은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동수요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는 노동의 수요 또한 정체되므로 이들 근로취약계층의 노동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선별(screening)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성과비교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훈련의 성과 또는 평가는 매해 단일한 기준 내지 지표로만 실행하기보다는 특성에 맞는 지표 및 기준을 개발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후 실업자 직업훈련은 장기실업자나 같은 취업이 어려운 그룹의 참여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에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실업자의 훈련은 중장년 취약계층의 훈련과 관련지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99년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성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훈련유형별에 따른 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성과는 민간지정기관이 가장 좋았다.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다소 공공기관의

재취업률이 높았으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개인특성별로 볼 때 남자와, 고졸이상의 학력의 성과가 좋았는데 이는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99년에는 경력이 적은 저연령층 중심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재취업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훈련이전실업기간이 긴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성과는 예상대로 낮으며 훈련기간에 따른 성과는 98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재취업성과 높았으며 훈련직종별로는 운송장비,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환경분야 직종에서 재취업성과가 높았다.

훈련의 효과에 의한 임금비교보다는 단순한 비교만을 실시한 중도탈락자와 수료자간의 임금비교에서는 수료자의 임금상승이 약간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노동이동에서는 일반적인 노동시장과는 달리 타직종 또는 타산업으로의 이동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실업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재취업확률이 중도탈락자의 재취업가능성에 비해 21.2%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 이동임, 이상준 외(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민간부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영선·이상준(1999),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동부 (각 년도),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노동부(1998, 1999), 「실업대책훈련 실시현황」.
- 라운정(1993), 『우리 나라 실업자의 특성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준호 외(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김미란(200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택수 외(1999), 『실직자 훈련체계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노동연구원(각 호), 「고용보험동향」

<부표 1> 훈련종료 월별 90일 이내 재취업률

훈련종료 월	98년	99년
2월	0.0	6.02
3월	1.3	9.12
4월	1.2	11.75
5월	5.2	11.12
6월	7.1	10.46
7월	11.9	11.49
8월	16.2	9.45
9월	20.5	10.14
10월	25.4	11.37
11월	27.9	10.59
12월	33.4	12.04
익년 1월	40.3	12.39
2월	40.0	12.71
3월	33.3	11.94
합계	29.2	11.24

<부포 2> 개인특성별 훈련이전실업기간 분포

(단위: 명, %)

구 분		30일 이하	1-3개월	91-120일	6-12개월	1년이상	합계
성별	남자	7,455 (9.9)	20,019 (26.7)	4,136 (5.5)	24,604 (32.8)	26,345 (35.1)	75,104 (100.0)
	여자	6,074 (9.0)	18,086 (26.7)	4,035 (5.9)	22,131 (32.6)	23,568 (34.8)	67,820 (100.0)
	소계	13,529 (9.5)	38,105 (26.7)	8,171 (5.7)	46,735 (32.7)	49,913 (34.9)	142,924 (100.0)
학력별	초졸	45 (4.2)	155 (14.4)	54 (5.0)	366 (34.0)	502 (46.6)	1,077 (100.0)
	중졸	264 (5.4)	917 (18.7)	241 (4.9)	1,550 (31.6)	2,199 (44.8)	4,907 (100.0)
	고졸	7,165 (8.8)	20,995 (25.8)	4,653 (5.7)	26,321 (32.4)	29,371 (36.1)	81,340 (100.0)
	전문대졸	2,643 (11.6)	7,026 (31.0)	1,396 (6.1)	7,171 (31.6)	7,107 (31.3)	22,700 (100.0)
	대졸	3,291 (10.4)	8,743 (27.6)	1,778 (5.6)	10,822 (34.2)	10,285 (32.5)	31,628 (100.0)
	대학원졸	105 (8.5)	253 (20.4)	49 (4.0)	503 (40.6)	435 (35.1)	1,240 (100.0)
	소계	13,513 (9.5)	38,089 (26.7)	8,171 (5.7)	46,733 (32.7)	49,899 (34.9)	142,892 (100.0)
연령별	20세 이하	320 (17.5)	817 (44.7)	168 (9.2)	509 (27.9)	333 (18.2)	1,827 (100.0)
	20-29세	9,056 (11.2)	24,496 (30.4)	4,967 (6.2)	24,227 (30.1)	26,876 (33.4)	80,566 (100.0)
	30-39세	2,967 (8.0)	8,625 (23.2)	1,962 (5.3)	12,877 (34.7)	13,698 (36.9)	37,162 (100.0)
	40-49세	882 (5.8)	3,016 (19.8)	749 (4.9)	5,962 (39.1)	5,502 (36.1)	15,229 (100.0)
	50-59세	292 (4.0)	1,074 (14.7)	296 (4.1)	2,899 (39.8)	3,020 (41.4)	7,289 (100.0)
	60세 이상	12 (1.4)	77 (9.0)	29 (3.4)	261 (30.7)	484 (56.9)	851 (100.0)
	소계	13,529 (9.5)	38,105 (26.7)	8,171 (5.7)	46,735 (32.7)	49,913 (34.9)	142,924 (100.0)
전사업장 규모별	5-10명	4,484 (20.8)	10,637 (49.4)	1,997 (9.3)	6,982 (32.4)	1,936 (9.0)	21,552 (100.0)
	11-30명	3,106 (10.1)	8,841 (28.8)	1,886 (6.1)	10,150 (33.0)	9,842 (32.0)	30,719 (100.0)
	51-100명	1,314 (7.6)	3,884 (22.4)	805 (4.6)	4,982 (28.7)	7,680 (44.3)	17,351 (100.0)
	101-300명	1,811 (7.3)	5,617 (22.7)	1,183 (4.8)	7,156 (28.9)	10,776 (43.6)	24,732 (100.0)
	301-500명	585 (6.3)	1,975 (21.2)	411 (4.4)	3,008 (32.3)	3,906 (42.0)	9,300 (100.0)
	500명 이상	2,229 (5.7)	7,151 (18.2)	1,889 (4.8)	14,457 (36.8)	15,773 (40.2)	39,270 (100.0)
	소계	13,529 (9.5)	38,105 (26.7)	8,171 (5.7)	46,735 (32.7)	49,913 (34.9)	142,924 (100.0)